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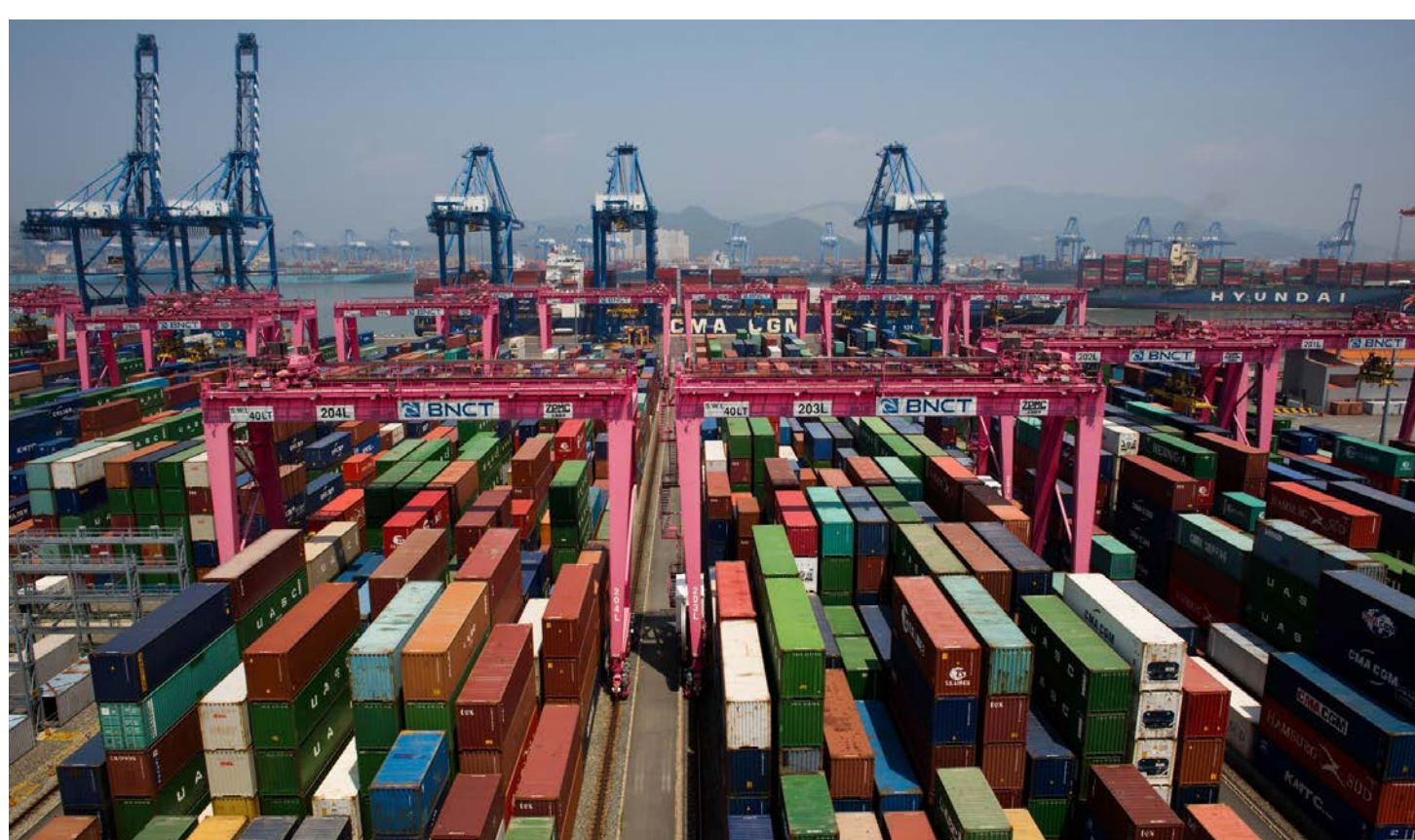
베트남, 지난해 근로자 평균소득 670만동(286달러)

11일 통계총국발표에 따르면 2022년 근로자 월 평균소득은 670만동(286달러)으로 전년 대비 16%(92만7000동) 증가했지만 2019년 대비로는 12.7%(75만9000동) 증가했다. 지난해 실업률이 12.7%로 전년 대비 0.88%p 하락했다. 그러나 2019년보다는 여전히 0.16%p 높았다. 지난해 실업자는 35만9000여명 감소했다. 지난해는 산업 전 부문이 골고루 성장해 소득도 함께 늘었다. 그중 산업·건설 부문 소득은 전년 대비 17.6%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컸고, 이어 서비스업(15.4% 증가), 농업·축산업(9.8% 증가) 순이었다. 이중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750만동(320달러)으로 전년 대비 15.1%, 2019년 대비로는 12.5%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 근로자의 평균소득이 800만동(341달러)으로 여성의 1.14배였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이 840만동으로 농촌지역(690만동)보다 1.23배 많았다. 지난해 실업률은 2.32%로 전년보다 0.88%p 하락했다. 그러나 2019년보다는 여전히 0.16%p 높았다. 지난해 실업자는 35만9000여명 감소했다. 통계총국에 따르면 지난해는 3분기까지 양호한 경제 성장으로 고용 상황도 개선되었지만, 4분기에는 주문 감소로 공장이 쉬는 곳이 늘어나며 고용시장에 찬바람이 불었다. 2022년 4분기 호찌민시에서는 11만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이중 6300명은 해고되었다. 또 작년 한해 동안 사회보험 일

한국 1월 1~10일 수출 0.9% 감소... 무역적자 63억달러 기록



1월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1% 가까이 감소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했다.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이 달 1~10일 수출액은 139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 줄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8억5천만달러로 14.1% 감소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7.5일로 1년 전보다 1일 많았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제품(26.9%), 승용차(51.7%), 무선통신기기(43.5%) 등은 증가했으나 반도체(-29.5%), 정밀기기(-11.5%) 등은 감소했다. 상대국별로는 미국(17.6%), 유럽연합(21.8%), 일본(6.4%) 등에 대한 수출은 늘어난 반면 중국(-23.7%), 베트남(-5.1%),

대만(-23.0%) 등은 줄었다. 수출은 지난달에도 전년 대비 9.5% 줄어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수입액은 201억달러로 6.3%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9.5%), 석탄(26.0%), 기계류(28.5%) 등은 늘었지만 원유(-6.5%), 가스(-12.9%) 등은 줄었다. 중국(16.1%), 미국(2.8%), 유럽연합(17.3%) 등으로부터 수입은 증가했으나 일본(-7.1%), 사우디아라비아(-16.1%), 말레이시아(-12.7%) 등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62억7천200만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적자 규모는 1년 전 같은 기간(49억5천400만달러)보다 커졌다. 지난달까지 무역수지는 9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9개월 이상 연속 적자는 1995년 1월~1997년 5월까지 적자를 기록한 이후 25년여 만에 처음이다. (연합뉴스 2023.01.11)

베트남, 중국 국경검문소 입국자 신속항원검사 실시



베트남 보건당국이 중국에서 국경검문소를 통해 입국하는 이들 중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과 같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1일 보도했다. 응웬 르엉 탐(Nguyen Luong Tam) 예방의학국 부국장은 "보건당국 및 랑선성 보건국, 호우응이(Huu Nghi) 국경검문소측과 회의록을 가졌다" 며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자 가운데 모든 의심증상자에 대한 신속항원검사는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탐 부국장에 따르면 검사 결과 양성이면 즉시 인근에 마련된 격리시설로 이동하고, 그 샘플은 유전자 시퀀싱을 위해 국립위생역학연구

소로 보내져 변이 여부를 관찰할 예정이다. 랑선성 국제의료센터에 따르면 중증자는 준비된 성내 의료시설로 이송되고, 나머지 양성반응자가 머물 격리시설도 이미 준비되었다. 보건당국은 나머지 국경검문소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곧 같은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으로 출국하는 중국인들은 중국측의 요청으로 48시간 이내 RT-PCR 검사 음성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베트남인들과 나머지 외국인들은 허가자의 입국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보건당국은 최근 오미크론 하위변이인 XBB와 XBB.1.5가 국내에 이미 유입되어 조만간 우세종이 될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하위변이의 높은 전파력에도 백신의 광범위한 접종과 집단면역 형성으로 크게 위험한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탐 부국장은 "모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예방에 최우선에 뒀다 하지만 새로운 변이를 추적하기 위해 무작위 검사와 유전자 분석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호우응이국경검문소에 따르면 현재 고국 방문을 위해 출국하는 중국인들은 많지만 관광을 위해 입국하는 중국인들은 아직 많지 않은 편이다. (인사이드비나 2023.01.11)

호찌민시, 공립병원 건설 민간투자 유치 추진



호찌민시가 공공의료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공립병원 건설에 민간투자 유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1일 보도했다. 시 보건국이 이 현실화되고 있으나 열악한 최근 인민위원회에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공공의료 재정 부담은 128개(이중 64개는 사업)의 병원 종사자 근무여건 향상 등을 위해 공립병원 건설에 민관협력(PPP) 방식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300~500병상 규모 공립병원 신축에 공공부지 민간에 양도 ▲민간자본 활용해 외국인 의사 및 간호사 고용 허용 등이다. 한편 시 보건국에 따르면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격무, 저임금 등의 이유로 퇴사한 공립병원 간호사와 의사는 약 1300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찌러이병원(Cho Ray), 열대질환병원 등 대형 공립병원은 의뢰서비스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으나 열악한 최근 인민위원회에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공공의료 재정 부담은 128개(이중 64개는 사업)의 병원 종사자 근무여건 향상 등을 위해 공립병원 건설에 민관협력(PPP) 방식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호찌민-껀터 고속철도, 사업비 91억달러 추산... 예비타당성조사 보고



베트남 남부지방의 핵심적 교통인프라가 될 호찌민-껀터(Can Tho) 고속철도 사업비가 91억달러를 추산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0일 보도했다. 철도프로젝트관리위원회가 최근 교통운송부에 제출한 호찌민-껀터 고속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빈즈엉성(Binh Duong) 안빈역(An Binh)부터 꺀터시 꺀터역까지 길이가 174.42km의 복선철도로 15개 역사를 건설할 계획이다. 설계속도는 여객열차 190km/h, 화물열차 120km/h이고, 총사업비는 213조9480억동(91억2360억달러)으로 추산된다. 사업방식은 PPP(민관협력) 방식으로 2030년 이전 착공이 제안됐다. 보고서는 호찌민-껀터 고속철도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의 교통수요를 충족하고, 인구 및 노동력을 분산해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호찌민-껀터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현재 3~4시간이 소요되는 통행시간은 75~80분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이드비나 2023.01.10)

DAILY AD

성공적 베트남 비즈니스의 동반자
쑤오 베트남 잡지와 데일리 뉴스레터에 **광고주** 를 모십니다!



* 본 메일은 광고주의 요청으로 쑤오베트남에서 보내 드리는 홍보 메일입니다.

기억력·지구력 향상에 우리집은 조아바이톤

기억력 개선, 지구력 증진,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도움을 줄 수 있음

구매문의: 077 494 5646 (한국인) 카카오톡 (hsvina) | 077 999 5647 (베트남인)
주소: I-1.TM.07 1st Floor Block Iris, Hado Centrosa Garden No.200, 3/2 Street, Ward 12, District 10, Hochiminh City, Vietnam.



조아 제약

골프와 바둑 그리고 인생

한주필 칼럼

잡기에 능하다는 소리가 있지요. 이런저런 놀이를 잘한다는 의미인데 제가 좋아하는 바둑이나 골프를 잡기로 불려야 할지 잠시 망설여집니다. 잡기란 잡다한 놀이의 기술이나 재주를 의미합니다. 과연 바둑과 골프가 잡다한 놀이인가 하는 의문이 가는 것이죠. 만약 바둑을 잡기라 한다면 가장 흥분할 사람은 일본인들입니다. 중국에서 시작한 바둑이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건너간 후에 제대로 된 대접을 받습니다. 일본에서는 바둑을 동양의 정신이 이입된 일종의 道라고 생각하고, 막부시대에는 국가國技로 삼아 적극 지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바둑을 잡다한 놀이라고 치부한다면 그들의 얼굴이 붉어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도 바둑을 잡기로 보지 않습니다. 엄청난 정신 집중이 필요한 게임입니다. 머리가 혼란할 때 가끔 인터넷 바둑을 두거나 유튜브에서 프로들 게임 영상을 봅니다. 흠어진 정신이 다시 질서를 잡는 듯합니다. 골프도 정신을 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골프 게임은 정신 70%, 운 20%, 기량 10%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지요. 육체적 운동 중에 가장 많은 정신 소모를 요구하는 운동이 골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 다 좋아합니다. 이 두 가지 운동은 서로 비슷하고 또 인생과 너무 닮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과 만나면 알게 모르게 인생을 배웁니다.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인생을 배울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유익도 흔하지 않을 듯합니다.

바둑과 골프, 두 가지 다, 인생의 길과 너무 유사합니다. 골프에서 인생을 배운다고 하고, 바둑에서는 인생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 유사점이 많은 두 가지 운동에서 배운 인생을 한번 들쳐볼까요.

골프나 바둑을 함께 하면 상대의 심성을 대변에 알아봅니다. 골프 한 라운드를 돌거나, 바둑 한 게임을 겨루면 상대가 감춰두었던 성격까지 다 드러납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성분들과 바둑을 두면 깜짝 놀랍니다. 무엇에? 그들의 호전성에 화들짝 놀랍니다. 한국의 프로 바둑기사 중에 가장 뛰어난 여성 기사는 최정 프로인데, 그녀의 뛰어난 싸움 실력에 남자 기사들이 혀를 두드립니다. 그녀만 그런 것은 아니고, 대체로 여성 바둑기사들은 주로 싸움으로 승부를 냅니다. 남자들은 개인마다 틀리긴 하겠지만 최고의 기사들은 잘 싸우지 않습니다. 바둑 역사상 최 고수로 자타가 인정하는 이창호 기사는 상대가 싸우려 담벼도 여간해서는 대응을 안 합니다. 그는 안 싸우고 이기는 방법을 택합니다. 어찌 보면 남자다운 기상이 없어 보인다고도 말할 수도 있지만 진정한 고수는 피를 흘리지 않고 승리하는 길을 찾아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호전적일 수 있다는 것을 바둑을 통해 알았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한여름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은 헛말이 아닌 모양입니다.

바둑 격언에 초반 50점 필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반에 뜻하지 않은 대박을 만난 바둑은 끝까지 그 유리점을 유지하며 승리하기 힘듭니다. 골프에서는 첫 홀 버디는 게임을 망친다고 하지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예상 못 한 대박에 오만한 마음이 생기면 대박이 패가망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둑에는 일수불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내려놓은 돌은 다시 짚을 수 없습니다. 골프에도 공을 있는 그대로 치라고 합니다. 미스 난 샷을 다시 칠 수 있는 멀리간은 인생을 다 산 70세 이상의 명랑골프에서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수, 한 샷 정신을 집중하여 후회 없는 착수와 스윙을 해야 합니다. 인생

도 한 번 삽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후회 없는 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순간에는 신중한 자세와 침착한 언행이 필요합니다.

바둑에는 수많은 격언이 있습니다. 부득탐승(不得貪勝): 승리를 탐하면 얻지 못한다. 사소취대(捨小取大):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라. 봉위수기(縫危須棄): 위기가 닥치면 돌을 버려라. 기자쟁선(棄子爭先): 돌을 버리더라도 선수를 잡아라.

그 외에도 수많은 격언이 있지만, 모든 격언의 뜻을 하나로 모은다면,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승부는 욕심이 빌미가 되어 결정됩니다.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디 욕심에 늘 핀 만 보고 샷을 날리거나, 욕심껏 버디 퍼팅을 하다 길어지면 버실보둑(버디를 잃고 보기를 얻는다)이 됩니다. 주식시장이 나빠지는데 잃은 자금이 아까워 손절하지 못하면 강릉 구좌만 남습니다.

세상사의 모든 문제는 욕심에서 생깁니다. 돈, 명예, 사랑,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원초적 본능인 욕심을 버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적당히 제어할 방법은 있습니다. 욕심 크기만큼 배려와 양보를 그 욕심에 삼입하면 균형을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글로 쓰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정작 행동으로 옮기기는 태산을 오를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올라야 만날 수 있는 평화라면 올라야 하지 않을까요?

정상까지는 아니라도 오른만큼은 편해진 마음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



DAILY AD

성공적 베트남 비즈니스의 동반자

신짜오 베트남 잡지와 데일리 뉴스레터에 광고주 를 모십니다!



* 본 메일은 광고주의 요청으로 신짜오베트남에서 보내 드리는 홍보 메일입니다.

문구 생활 · 편의 Shop



www.alpha.co.kr

세계 1 위 최초, 최고, 최다

문구 생활 · 편의 Shop

“문구스토어 사업주를 모십니다.”

- Alpha(한국) 스토어
- 문구 생활 편의용품 판매 매장운영 경험자
- 50평이상 매장 운영하실분
- 물류 체인사업 모집



연락처 TEL : +82_2_3788-6175 / H.P : +82_10-3829-9380
e-mail : david@alpha.co.kr / kakaotalk : hoonni21



WWW.VINACENTURY.VN

냉동기 납품 세관 설치 전문회사

VN-CENTURY

착한 가격으로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약속합니다



주요 사업 분야

터보·스크류 냉동기
공기 조화기
대형 에어컨
향온 향습기
냉각기
클린룸
저온 창고
덕트·배관 설비 등

주요 실적

경남 랜드마크 공기 조화기 납품
롯데 호텔 터보 냉동기 / 냉각탑 세관 및 설치
하노이 방송국 터보냉동기 오버홀 및 세관
삼성전자 타이엔엔 공장 터보 / 스크류 냉동기 반입 및 설치
베트남 한국대사관 공기 조화기 납품 및 시운전
동나이 효성공장 터보 냉동기 수리 및 오버홀
하이퐁 빈페스트 공기 조화기 시운전
한양 디지털 공기 조화기 설치 및 시운전

하노이 본사 VINA-CENTURY.,LTD

Số nhà 37, trục số 1, Đường Trần Thái Tông, Tổ 41, Phường Dịch Vọng, Quận Cầu Giấy, TP Hà Nội

TEL : 043-555-3646

KR : 098 591 5091
038 777 0621
VN: 098 491 3986

호치민 지사 VINA-CENTURY.,LTD

C8-62 Khu đô thị DTA, Xã Phước An, Huyện Nhơn Trạch, Tỉnh Đồng Nai, Việt Nam

TEL : 025-1257-2007

KR : 098 591 5091
033 850 4395
VN: 098 491 3986



Kakao Talk
vncentury

베트남 전력 시장 공략하는 韓기업 “수익성 감소 대비해야”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전력 인프라 사업과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현지 투자를 늘리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인데다 낙후한 전력 인프라를 고려할 때 기회가 많다. 그러나 전력 구 매단가가 떨어지면서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등 수익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9일 조선비즈가 보도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LS 전선아시아는 지난달 베트남 호치민 법인(LS Cable & System Vietnam)에 랜 케이블(UTP) 설비를 증설해 생산능력을 기존보다 약 15%가량 늘렸다. 대한전선도 베트남 법인(Taihan Cable VINA)의 전력케이블, 제어장치 케이블, 전기동 관련 설비 고도화 투자를 결정. 올해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베트남 정부가 전력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자 전선업체들도 발을 맞추는 것이다. 베트남은 송·배전망 문제로 발전용량 대비 실제 전력 공급량이 절반 수준에 그치는 문제를 겪고 있다. 수요에 힘입어 LS전선아시아의 하이퐁 법인(LS-VINA Cable & System)과 호찌민 법인은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 8048억원을 올려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한전선도 베트남 법인의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이 1049억원으로 1년 새 71%의 성장을 보였다. 수출도 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베트남에 수출한 절연 전선·케이블은 1억7300만달러(약 2100억원)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대(對)베트남 전선·케이블 연간 수출액은 2017년 6200만달러 이후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이어왔다. 우리 기업들은 베트남 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도 진출했다. 특히 베트남 정부가 풍력발전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업을 확장하는 분위기다. SK E&S는 베트남에서 131메가와트(MW)급 태양광 발전소와 더불어 150MW 규모의 풍력 발전소를 운영 중이다. 두산에너지빌리티 베트남 법인(Doosan VINA)과 씨에스윈드 베트남 공장에선 풍력터빈을 만들고 있다. 이밖에 도화엔지니어링, 신성이엔지등도 베트남 태양광 발전소 운영과 시공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베트남 내 발전차액지원제도(FTT)가 차례로 일몰하면서 프로젝트들이 무산되는 일이 늘어나는 점은 걱정거리다. FTT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구매 가격이 기존 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규 프로젝트는 FTT를 적용받지 못하고, 매년 베트남 정부가 발표할 가격 범위 내에서 베트남전력공사(EVN)와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해야 한다. 발전사업자 입장에선 기대 수익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발전사업자의 기대 수익도 크게 줄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베트남 육상 태양광발전 전력 구매단가는 2017년 킬로와트시(kWh)당 2086동(약 110.7원)이었는데, 지난해 11월 발표한 임시 단가는 1188동(약 68원)으로 반토막 났다. 베트남 내 재생에너지 사업과 전력 인프라 사업의 잠재력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조선비즈 2023.01.09)

비글라세라, 작년 이익 9760만달러 전년 대비 48% ↑



따르면 비글라세라는 지난해 9월까지 박닌성(Bac Ninh) 엔퐁산업단지(Yen Phong) 50만㎡ 부지 임대와 함께 당샤(Dang Xa) 도시개발사업, 사회주택사업 등으로 큰 수익을 거뒀다. 이 밖에도 동반4산업단지(Dong Van 4) 근로자용 주택이 최근 완공돼 임주를 위한 최종 절차를 진행중이고, 최근 엔퐁산업단지 및 동마이산업단지(Dong Mai) 등지에서 2000호 규모의 근로자용 주택개발 사업을 시작했다. 비글라세라는 2025년까지 총 2000만~3000만㎡ 규모의 10개 산업단지를 신규개발하는 등 전체 산업단지를 20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부동산부문 외의 주력사업인 전자제품 부문도 작년 상반기 하루 생산용량 600톤 규모의 푸미올트라글래스코(Phu My Ultra Clear Float Glassco)를 인수합병했고, 유리값 급등으로 매출이 크게 늘었다. VCBS는 그러나 올해 비글라세라가 ▲부동산부문은 엔퐁산업단지, 푸하산업단지(Phu Ha), 하이엔산업단지(Hai Yen), 띠엔하이산업단지(Tien Hai), 풍디엔산업단지(Phong Dien) 등의 임대 부지 부족 ▲전자제품 부문은 국내 유리 공급 확대 및 유리값 하락 등으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시아비즈 2023.01.10)

고성장' 베트남 펀드로 뭉치돈 몰린다



새해 개인투자자들의 대체 투자처로 베트남이 떠오르고 있다. 베트남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성장성 대비 주식이 저평가했다는 인식이 깔리면서 펀드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뉴시스지가 10일 보도했다. 이날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한달 동안 21개 베트남 펀드에 25억원, 3개월 동안 130억원의 자금이 몰렸다. 같은 기간 194개 펀드에 514억원이 몰린 중국 펀드에 이어 두 번째로 유입액이 많았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관심을 모았던 인도네시아(-20억 원)에서는 지난 한달간 자금이 빠져나갔다. 올해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베트남은 경제 고성장상을 이어갈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베트남 증시는 VN지수 증가는 1054.21로, 지난해 11월15일(911.90) 이후 15.6% 상승했다. (뉴시스 2023.01.10)

BIDV,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기록... 하나은행 해외사업 호조



다. 지난해 연간 목표(20조6000억 동·약 1조9000억원)를 초과 달성했다. 작년 말 기준 총자산은 2080조 동(약 110조원)으로 연초 대비 21% 늘었다. 총자산이익률(ROA)은 0.95%,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0.2%로 집계됐다. 부실채권 비율은 0.9% 수준이었다. BIDV 순이익이 증가하면서 하나은행 해외사업의 수익성도 크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은행은 앞서 지난 2019년 11월 BIDV의 지분 15% 취득해 2대 주주에 올랐다. 하나은행은 BIDV와 관련해 작년 3분기 누적 1360억원의 지분법 이익을 거뒀다. 이는 지난 2021년 연간 지분법 이익 1200억원을 웃도는 수치로, 같은 기간 전체 해외법인의 순이익(807억원)보다 많았다. (더쿠루 2023.01.10)

Shinhan Bank
고객님을 위한 신한베트남은행의 특별한 혜택

- 신한 -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신용카드
- 신한 PWM & VISA Signature 신용카드

롯데리아, 베트남서 식자재 현지화... 롯데F&G베트남 설립



롯데리아가 베트남에 진출하며 현지 식자재 생산을 위한 롯데F&G베트남을 설립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누턴 부총리는 세계적으로 충분한 백신 접종으로 면역이 형성됐기 때문에 접종 증명서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접종 증명서 제출은 번거롭고 불편하기도 하다"며 "미접종자도 제약 없이 입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국경 재개방에 각국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등 입국 규제를 강화했다. 태국도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18세 이상 모든 관광객에게 코로나19 백신 2회 이상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입국자는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중국과 인도 등 귀국 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필요한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는 코로나19 치료비 보장용 보험에도 가입하게 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 없이 중국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하려는 조치로, 접종 증명서 제출이 핵심이었다. 태

국인 중국과의 관계와 관광 수입 변경했으며, 환율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정서 제출을 가하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수 이후 정부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었다. 관광업계의 요구로 얼마 전 전격적으로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입국 규제가 수시로 바뀌자 태국 방문을 계획 중이거나 입국을 앞둔 여행객을 비롯해 관련 기관과 기업 등은 혼란을 겪고 있다. 태국을 찾은 외국인 입국자는 2019년 연간 4천만 명 구 국자는 2019년 연간 4천만 명으로 모였으나 2021년 42만8천 명으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입국 규제는 완화된 외국 관광객이 1천181만 명으로 회복됐다. 이누턴 부총리는 애초 500만 명이었던 올해 중정서를 보냈다. 업계는 진정서에서 코로나19 백신 2회 이상 접종을 요구하는 규정에 대한 관광객들의 불만이 많으며 이를 폐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유럽과 러시아 등의 많은 외국 여행객이 새로운 입국 규제로 여행 일정을

당분간 중국 못간다, 한국·일본인에 비자 중단...중국발 입국규제 첫 보복

한국은 단기비자 발급중단, 일본은 공무, 외교비자를 제외한 모든 일반비자 발급 중단.



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상기 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취업 및 유학 등으로 중국에 머무는 가족을 만나거나 개인 사정으로 단기간 체류가 필요한 경우 받는 방문 비자(S2), 비즈니스와 무역 활동을 위해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상업무역 비자(M)는 이날부터 발급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관광 비자(L) 등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발급되지 않고 있다. 다만 취업비자(Z), 가족 동거 장기비자(Q1), 장기 유학비자(X1), 가족 방문 장기비자(S1) 등 장기 비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중국행 비자 수속을 정지했다. 주일본 중국대사관은 이날 밤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오늘부터 일본 국민에 대한 중국 일반 사증(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한다"며 "재개에 대해서는 재차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비자는 외교, 공무, 예우 비자를 제외한 비자를 의미한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단기 비자'

를 중단한 한국에 비해 중단하지 "중국 측 조치에 대해서는 양국 외교체절을 통해 서로 협의, 라는 점과 발급 재개 시기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다룬다. 한편에 대한 중국 측은 전달하면서 차이가 보였다. 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 왕원민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소수 국가는 과학적 사실과 자국의 감정을 발생 상황을 의연하고 역사 내린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전히 중국을 겨냥해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고집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고 대응한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관련 국가들이 사실에서 출발해 과학적이고 적절한 방역 조치를 할 것 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며 "정치 적 농간을 부려서는 안 되고 차 별적인 방법이 없어야 하며 국 가 간 정상적인 인적교류와 교류 협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 다"고 강조했다. 특정 국가를 명 시하지 않았지만, 한국과 일본 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 조치가 한국과 일본의 방역 강화에 대 한 상응 조치라는 점을 인정했 다. 한편 입수석 대한민국 외교 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

BW INDUSTRIAL (주)BW산업개발

베트남 최고의 임대공장 및 임대창고

- 10대 핵심산업 도시 ★ 35개 프로젝트 ★ 2.465백만평의 토지 보유
- BWID고객 수 211개 기업 24개국

- ✓ 위치: 하노이, 호치민시 인근 - 약 30분부터
- ✓ 즉시 입주가능
- ✓ 다양한 면적 (최소 302평)
- ✓ 저렴한 임대료
- ✓ 공장설립 무료상담 및 인허가 무료지원

> BWID와 함께 베트남 진출을 시작하십시오

☎ 핫라인: (+84) 28 710 29 000

✉ 이메일: leasing@bwidjsc.com

☎ Kakao Talk ID: VaniDang